

시간의 회로 찾는 일탈의 소설들

두권의 장편과 한권의 단편집을 읽고

한원균

문학평론가

오늘날 소설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일탈을 향한 다양한 욕망을 드러내거나, 현실의 혼돈을 정리하면서 실존적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 '90년대적'이라는 말이, 때로는 중심없음, 다양함, 분화된 감성 등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현상 역시 이와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대안과 전망을 찾는 일이 진부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변화를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일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치적인 그물망으로는 걸러낼 수 없는 의식의 미세함, 인간의 삶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이 자주 소설로 구성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윤대녕, 최윤, 이동하의 최근작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억의 진원을 향한 회귀

윤대녕의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중앙일보사)는 기억을 통해 한 인물의 과거가 현실과 접맥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내와 별거, 이혼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을 불현듯 끼어들게 된 주인공의 과거, 그것은 마치 뚜렷하지 못한 방향을, 정확히 말해 가는 것인지 오는 것인지 불명확한 '되새김'처럼 그의 삶 속으로 투입해 들어온다. 「시간의 회살」이라는 책의 번역을 의뢰한 얼굴 없는 존재로 인해 그는 삶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반성은 기억의 진원지로 향한, 다시말해 현실적 혼돈이 비롯된 근원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회귀'의 욕망과 다르지 않다. 기억하는 행위란 시간의 불가역성에 대한 일종의 반란으로 시간에 의해 규정되고, 구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존재에 대한 성장적인 태도를 수반한다. 그에게 팩스 전문문을 보내오는 E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삶의 근원, 존재가 비롯되는 시원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한다.

그러한 시선은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관계지어진 모든 타인에 대한 관심을 요구한다. "그렇다. 나는 누, 군, 가, 를 보고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에게 보는 행위는 과거를 기억하려는 노력과 같다. 켜켜이 쌓인 시간의 성체를 조금씩 털어 내면서 떠나는 여행은 때로 현실의 그를 "아주 비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지만, E의 세계, 팩스 전문문 너머에 있는 과거의 공간으로 향하게 한다. '나'와 E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심연은 '산수유'라는 술집, 종로의 레코드 가게, 그



리고 그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자들로 채워진다. 그들은 현재와 과거가 만들어 낸 시간의 단층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그에게 시간은 '곡선운동'을 한다. 시작과 끝은 이어져서 무한히 되풀이되고 있으며, 존재란 '그 시작과 끝이 맞물리는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 지점이, 존재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자신을 보는 일과 같다. 현실의 자신을 '보이는 대로의' 모습, '겉보기'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존재의 비의와 신성은 과거로부터 온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존재의 시원을 밝히는 현실 속의 자신이면서 '관계'속으로 편입해 가는 성장의 과정에 대한 일깨움이기도 하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오늘의 이야기」

최윤의 소설집 「속삭임, 속삭임」(민음사)은 숨겨졌다고 생각되는 과거 속의 일들에 대한 세밀한 재생이 돋보인다. 성장의 길목에서 만났던 낯선 일들과의 만남에 대하여 그녀는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기억의 한권을 온전히 메우고 있는 시간에 대한 반추가 현재의 삶을 얼마나 의미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는 않다는 것을" "일찍"배웠다는 진술은 유년시절 성장의 고통이 그의 소설의 존립근거가 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기억하고 있는 동안 이야기는 존재한다. 그녀가 무엇을 기억하든지 현실의 그녀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녀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푸른기차」에서 보이는 주인공의 여로는 90년대적인 '소설가 구보'를 생각하게 한다. "밖으로 나갈 때는 지폐 한 장씩을 주머니에

넣는다. 지폐 한 장의 하루 경영은 그에게 약간의 질서를 제공하며, 지폐 한 장의 한계는 선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그를 지켜주고, 지폐 한 장의 자유는 하루의 일정에 리듬을 부여"한다는 삶이란 끝없는 관념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지폐 한 장이 지속적인 산책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 길 위에서 무수한 이야기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 여행에서 그는 '결인 소녀'(「위싱턴 광장」), 운동권 수배자였음을 알고도 모른 채했던 경찰관(「문경새재」), 좌익운동을 했던 인물과(「속삭임, 속삭임」), 무명의 예술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그의 침묵」) 만나게 된다. "가끔 미닫이 문이 열린 유년의 안방에서 부모의 대화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고백은 추억 속에 묻힌 시간을 재생하는 것이 그의 상상력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의식의 분화현상이 사물세계—인간적인 만남이, 탈색된 스크린처럼 무의미화를 지향하는 것 같은—에 반응하는 기억의 편린으로 드러나는 현상(「숲에서 숲으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조각난 시간 속에 투입된 존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물의 이면에 가려진 삶과 '한 번에' 그리고 '여러 곳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 역시, 이러한 회상의 힘에 기원하고 있다.

기억의 회로가 닿는 지점에서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속삭임, 속삭임」이다. 남편과 딸아이를 동반한 휴가지 과수원에서 유년시절 만났던 한 남자의 삶에 관하여 회상하는 것이 이 작품의 중심 축이다. 삶의 과정에서 무수히 만

나게 되는 고난의 웅덩이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갈 수 있을까, 작가의 답은 일견 분명하다. 고단했던 한 인간의 삶에 대하여 기억해 주는 것, 끊임없이 이야기의 웅덩이를 만들어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오늘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 최윤 소설의 구성원리가 존재한다.

80년대 삶의 고통과 비애

이동하의 「냉혹한 혀」(고려원)는 80년대, 평범한 사람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80년대 삶의 고통이며 동시에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인공이 소위 '투사'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심화된 비애다. 술에 취해 파출소로 연행되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난 뒤 40여 일만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추적해간 이야기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비정치적인 모습의 삶이 실은 가장 정치적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치적'이라는 수식어가 일상의 차원으로 분화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인공의 죽음은 현실의 변화나 미래를 향한 투쟁과 큰 관련을 갖지 못하며, 폭력의 성격에 대해서도 작가는 그다지 자각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폭력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폭력화되는 현상을 무수히 경험해 왔던 우리의 역사를 감안해 보면 그가 보여주는 의문스런 죽음은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삶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제는 자각적인 필요가 있다.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비롯되는 존재론적인 탐색이 열만큼의 자장을 가질 것인지, 혹은 현실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제의적인 글쓰기와 반성이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중심을 잃은 모습으로, 글쓰기가 환멸적인 구도로 욕망의 재생에 기여한다든지(가령, 장정일의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하일지 「그는 나에게 지타를 아느냐고 물었다」의 경우), 혹은 정치적인 전망의 상실을 실존적인 차원의 고통으로 이해하려는 모습(김형경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온다」, 공지영 「고등어」의 경우) 속에서 우리 소설의 방향은 어디일 수 있을지 좀더 고민해야 할 일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